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우연히 발견한 상담의 기쁨

신O현 / 서울세O여자고등학교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힘든 경험을 많이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친하고 싶은 친구들이 나와 놀아주지 않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 학교 가기 싫은 날의 연속이었다. 그 친구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엄마들끼리도 친해 오랜 기간 같이 놀던 또래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 내가 그 사이에 끼일 수 없었다. 혼자 집에 오고, 부모님이 퇴근하는 밤 8시나 9시 무렵까지 집에서 혼자 생활해야 했던 당시 나의 상황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또래 상담부'에 들어갔다. 1학년 후배들과 3학년 선배들과의 짝후배, 짝선배 관계를 맺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후배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내게 상담하러 오는 후배나 친구들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대부분이 학업 스트레스였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뒤를 이었으며, 가끔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특별한 조언도, 명쾌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지만, 나를 찾는 후배들과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신기했다. 내가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기 때문보다는 그냥 묵묵히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상담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면 결코 2년이나 즐겁게 '또래 상담부' 활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색해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와 상담을 시작한 후배들이 편하고 밝은 표정으로 나갈 때 나는 그들 이상으로 기쁨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또래 집단 활동을 하면서 찾은 나의 적성은 곧 나의 진로가 되었고, 고등학생이 된 지금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상담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의 외로움 극복 경험 이 없었다면 나는 훈계하고 가르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치려고만 하는 상담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그리 쉽게 나아지는 것이 아님을 뚝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상담사로서의 자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상에 헛된 경험은 없다'는 말이 내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 것 같다.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우연히 참여하게 된 '또래 상담부' 활동이 나의 진로 선택에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했음이 놀랍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훌륭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경험에서 찾게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달을 때 행복한 인생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마음껏 이 세상을 그려나갈, 사랑하는 아들에게

심O주 / 학부모

“엄마, 난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는 가끔 이 말을 떠올리곤 해. 5살이 되던 이른 봄날, 넌 열심히 달려 뒷면에 그림을 그리다가 불쑥 그렇게 말했지. 작은 손에 크레파스를 보물처럼 꼭 쥐고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언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랐을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다랗게 성장한 네 모습이 엄마는 참 대견스럽기만 했어.

그렇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 너를 항상 보아왔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받아든 너의 적록색맹 판정은 너무나 충격이었어. 왜 하필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 수없이 헛된 질문을 반복했지. 안 그래도 “무슨 남자애가 그림이냐”,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던 몇몇 주변 사람들이, 네 색각 이상 판정이 당연히 네가 화가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속상하기만 했어. 되돌아보면 엄마가 참 나약했던 것 같아. 그런 무심한 이야기들에 마음이 휘둘릴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지.

하지만 이런 엄마를 서서히 일깨워준 것은 한결같은 네 태도였지. 어른들의 비뚤어진 시선에도, 친구들의 철없는 놀림에도 너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엄마는 그런 너를 통해 비로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위즈워드의 시구에 눈을 뜨게 되었어. 그리고 결심했지. 네 그 깨끗한 모습에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그리고 네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너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색각 이상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마주하게 될 거야.

미술이라는 세계에서 너의 색각 이상을 ‘원죄’로 여기지 않고 당당히 네 꿈을 펼쳐갈 네 모습을 생각하면 엄마의 가슴도 벅차오르는 것 같아. 네가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 인생의 기적을 되찾아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엄마는 잘 알아. “그림 그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다부지게 말하던 네 안의 그 아이의 목소리를 항상 기억하렴. 네가 좋아하는 그것, 네가 평생 하고 싶은 그것을 마음껏 쫓아가다 보면, 너의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거야.

2015. 8. 24

네 꿈을 힘껏 응원하는 엄마가